

“국민의 권리…소중한 한 표 미리 행사했어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현장

광주 96개·전남 298개 투표소 유권자 발길 이어져 ‘역대 최장’ 비례대표 투표 용지 접는 방식 등 혼란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5·6일 광주 96개·전남 298개 등 394개 투표소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투표 시간 내 이어졌다.

◇“혹시 몰라 미리미리”…참여 호소
지난 5일 오전 5시45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컨벤션홀, 사전투표 시작 15분 전임에도 운동복 차림의 주민,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어르신 등이 투표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6시 정각이 되자 선거 사무원들은 신원 확인을 거쳐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한 뒤 관외·관내 등 해당 투표소로 안내했다.

이날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가장 먼저 투표를 마치고 나온 김모(56)씨는 “답답한 정부에 대해 투표를 통해서라도 목소리를 내고 싶어 일찍 나왔다”고 말했다.

사전 투표 둘째 날인 6일에도 오전부터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를 찾아 복재동을 이뤘다.

계림2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투표를 한 경기도 주민 김선화(56·여)씨는 “광주에 가족들을 보러 왔다가 본투표 당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생각난 김에 먼저 들렀다”며 “투표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권리인 만큼 유권자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앞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지난 5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재난 참사 피해자를 위해, 안전 사회를 위해 진실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22대 국회에서는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보장 권리로 논의돼야 한다”며 “생명 안전 국회”를 건설하자고 강조했다.



추가 기표소 설치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 마련된 용봉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인파가 몰리자 관계자들이 기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 /김예리기자

◇고등학교 3학년 생애 첫 투표기쁨
전국 17개 시·도 중 사전투표율 1위와 3위에 이름을 올린 전남·광주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듯 지역 내 사전투표소에선 남녀노소 구분 없이 투표에 참

여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특히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온 80대 노부부가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선거 사무원의 승낙을 받고 한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 투표하

기도 했다. 남편 서영재(89)씨는 “복내장이 있어 불편하지만 투표하기 위해 전날부터 공부하고 왔다”며 “혼자였다면 어려웠겠지만 아내의 도움으로 투표를 잘 마쳐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표가 생애 첫 투표라는 고등학교 3학년 김모(18)군은 “뭔가 한층 성장한 국민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며 남구 주월1동 사전투표소에서 인증 사진을 찍는 등 뿌듯함을 감추지 않았다.

◇51.7cm 비례투표 용지 “한참 봤어요”
광산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50대 유권자가 투표지 활용을 시도하다 적발됐지만 실제로 찍지는 않아 귀가 조치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38개 정당에 등록하는 바람에 역대 최장 길이인 51.7cm 짜리 투표 용지에 대해 “한참을 들여다보고 투표했다”는 푸념도 터져 나왔다.

특히 투표 용지를 접는 뒤 투표함에 넣었다가 뒤늦게 자신이 투표한 정당의 다른 곳에 인주가 번져 무효표 처리되는 것을 걱정하는 유권자들도 눈에 띄었다.

이 밖에 광산구·북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소 100m 이내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각각 1건씩 발생해 선관위 등이 장소 이전을 고지하기도 했다. /주성학·정은정기자

광주시,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

시정참여형 등 4개 부문…안전사고 예방 관련 우선 선정

광주시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사업은 광주시 소관사무인 ▲시정참여형 ▲청년

참여형과 자치구 소관사무인 ▲지역참여형 ▲동단위계획형으로 나뉜다.

시정참여형은 광주시민의 생활 편익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당 5억원 이하 사업이다. 청년참여형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10억원 이하 사업에 대해 제안된다.

또 지역참여형과 동단위계획형은 주

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5천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 제안 받는다.

광주시는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사·선정해 시민참여예산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민원과 특정단체 사업, 중복성 사업, 회성 공연·축제,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안된 사업은 사업 부서의 검토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총회 등을

거쳐 2025년 예산안에 담겨 의회 승인 이후 최종 확정된다.

공모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월10일까지 인터넷(광주시 누리집, 주민e참여),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광주시는 특히 혁신적이고 참신한 제안 사업을 ‘시민광장 광주온’을 통해 접수한다.

광주온에서 30일 동안 50표 이상 공감받은 제안 사업은 사업 부서, 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120콜센터(062-120)나 062-613-2431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강기자

姜시장, 광주천변 보행로·자전거도로 점검

개발 광천권역·구도심간 보행·자전거 연결로 확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6일 광주천변 양방향에 조성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강 시장은 이날 시공직자들과 왕복 1.5km를 걸으며 광주천변 정비와 이달 운영을 다시 시작한 공영자전거 ‘타랑개’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봄철을 맞아 광주천변으로 산책을 즐기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함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전거 이용 환경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천동 재개발, 옛 방직공장터 개발, 신세계백화점 확장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광천권역과 구도심을 연계하는 보행 환경 개선 및 원활한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강 시장은 북구 소재 광운고하부(기아엔지니어스필드 인근)에서 동구 용산생활체육공원까지 왕복 도보로 6시간 가량 걸으며 천변 좌·우로 조성된 보

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살펴봤다. 최근 운영 정책과 이용요금 개선돼 시민 갈고리로 돌아온 ‘타랑개’ 운영을 살펴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용자 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광주천을 이용해 자전거나 도보로 문화·쇼핑 활동은 물론 힐링을 할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기자

해남 ‘산이정원’ 내달 4일 정식 개장

전남 최초의 정원형 식물원인 ‘산이정원’이 1단계 정원 조성을 마치고 오는 5월4일 정식 개장한다.

산이정원은 해남군 산이면의 지역명인 ‘산이’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고 ‘산이 곧 정원이 된다’는 2개 의미를 갖

고 있다. ‘미래와 함께 하는 정원(Garden with the future)’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조성된 미래지향적 정원이다.

솔라시도 초입에 위치한 산이정원은 전체 16만평 부지를 1·2단계로 나눠 개발 중이다. 5월 오픈을 앞둔 1단계 부지

(6만평)에는 ▲맞이정원 ▲노리정원 ▲물이정원 ▲동화정원 ▲야속의 숲 ▲생명의 나무 등 다채로운 테마 정원을 준비했다.

5월4일에 진행될 산이정원 개장식은 무료 입장할 수 있다. 방문 관련 문서는 산이정원 공식 홈페이지(www.sanigarde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이정원은 솔라시도에도 조성될 9개

정원 중 태양의 정원에 이어 두 번째로 준공되는 정원이자 일반인에게 최초 개방하는 정원이다.

개장식을 시작으로 산이정원은 가정의 달 행사 등 이벤트 뿐만 아니라 가드닝 교육, 정원해설 프로그램, 가든뮤지엄 전시회, 자연치유·힐링 프로그램 등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김재정기자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8상담문의

062-449-4446